

투데이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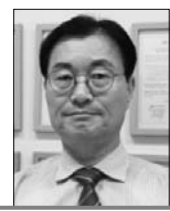
사라져가는 학교체육 이래서야 되겠는가?

**얼** 마 전 “전국 1500여 체육 교사, 체육시수 확보 및 체육 선택과목 보장을 위한 성명서 발표”라는 기사를 보았다. 내용인즉슨 학교체육시간이 주당 3시간에서 2시간으로 그리고 1시간으로 줄어드는 것을 반대하며 체육시간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 운동회, 체육시간, 체육장을 가지면서 성장기에 체력의 발달과 체력의 향상을 꾀하였고, 이후에 군(軍)으로 이어져 국방체력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기억되고 있다.

체력, 체력의 중요성은 두말한 나위 없이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덕목인지도 모른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는 글언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전 생애에 걸쳐 중요한 항목이 줄어들고 잊혀져가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다. 전인교육의 마당인 학교에서 체육활동을 권장하지 않는다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 학생들이 장차 이 나라의 주역이 될 텐데 제대로 된 인성과 사회활동을 펼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이 윤 희  
파스코 대표이사

체육활동은 체력의 성장과 발달, 체력의 육성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쳐 단체정신, 희생정신,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함양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21세기 들어 출생률이 감소하면서 형제자매가 줄어들어 형제끼리 서로 부대끼며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히는 인성과 우애가 형성이 쉽지 않다.

따라서 성장단계에서 각종 정신 질환이 증가하고 육아로 인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집안에서의 상호 위계질서도 무너져가며 학교, 군대, 사회에서도 선, 후배간의 기본적인 예의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보니 전체를 위한 어떤 생각이나 행위보다는 나만 아는,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하

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착각 속에서 자라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에 따라 한 조직이나 단체, 사회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전체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복무하고 생활해야 하는 기본적인 덕목조차 부족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를 위해 개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곳이 학교이고 체육활동이다.

더구나 단체경기의 경우 누구 하나가 특출하다하여 승리를 거두기란 그리 쉽지 않다. 구성원 전체가 승리를 위해 서로 돕고 희생하며, 하나가 되어야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몸매 익히고 가르쳐주는 것이 단체경기이고 체육활동의 궁극적인 방향이자 목표이

기도 하다.

상급학교진학을 위한 체력장제도가 없어지면서 (쪼어보니 그리 사실이지도 않지만)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과목에 떠밀리고 그나마 마라도 가느다랗게 겨우 명맥을 이어오던 체육시간조차도 줄어드는 발상을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일까요?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체육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체육수업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에 80%이상 동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고 상식적이라 “나똥고기도 모르는 분”이라 하더라도 이해하고 동의하는 내용이다. 무엇이 전인교육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인성을 배양하고, 효인간을 키워내는 것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하루 빨리 대처해야 할 것이다.

학교가 전인교육을 담당하고 인격 도야(陶冶)의 장(場)으로 위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상급학교 진학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설학원 같은 곳으로 만들어가려는 것이 아닌지 곰곰 되돌아보고 더 이상 학교가 망가지지 않도록 관련자들은 뼈를 긁는 심정으로 대오각성하기를 기대해본다.

사설

전북 기업 유치 전략 문제

전북의 기업 유치 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투자 협약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기업이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북에는 그동안 기업 유치 무산 사례가 적지 않다.

더구나 갈수록 세계적인 경기 침체 그리고 수출과 내수 부진은 기업 투자의 불확실성마저 키우고 있다. 유치 전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이 절실한 이 유다.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의 경우 유통기업인 쿠팡이 최근 입주를 철회했다. 쿠팡은 1천3백여 원을 들여 물류센터를 짓겠다고 지난해 3월 전라북도도와 완주군과 투자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토지 분양가를 둘러싸고 빚어진 완주군과의 갈등으로 인해 최근 투자를 접었다. 이에 앞서 삼성 그린에너지 종합단지 조성, OCI 폴리실리콘 공장 증설, LG화학 전기차 배터리공장 건립 등도 모두 무산됐다.

이들 모두 전북의 대표적인 투자 협약 사례들이다. 최근 5년 동안 전라북도과 투자 협약을 맺은 기업은 280곳이다. 이 가운데 공장을 짓거나 가동 중인 투자 이행 기업은 1백50곳이 조금 넘는다.

나머지 130곳은 투자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은 시장 접근성과 물류 여건 등에 있어 수도권은 물론 충청, 영남권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세제 혜택 등 기업 유인책이 더욱 필요한 이 유다.

세금 등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야 한다. 경제적인 측면의 어려움으로 지역 투자를 철회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투자 협약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기업 유체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도 강력 대처해야 한다. 다른 지역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 다양한 행정 지원에 힘을 쏟기 바란다.

김제 공덕 독거노인 안전손잡이

김제시 공덕면 복지공동체가 '독거노인 안전손잡이' 설치 봉사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웃사랑 실천에는 공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김제시자원봉사종합센터가 함께 했다.

이들은 거동이 불편한 관내 독거노인 12세대를 방문했다. 그리고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와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했다. 이번에 방문한 가정은 평소 찾아오는 보건복지 상담을 통해 발굴한 세대들이다.

이번 봉사 활동은 지역 맞춤형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이루어졌다.

독거노인 안전 손잡이는 일명 '안심 지팡이' 사업으로 통한다.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어르신들은 “다리에 힘이 없어 화장실 갈 때마다 힘이 들었는데, 안전 손잡이를 잡고 일어서니 편안하고 넘어질 위험이 없어 정말 좋다.”고 말했다.

공덕면민으로 이뤄진 공덕면 복지공동체는 취약계층을 위해 방충망 설치 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그밖에 보일러 수리, LED 전 등 교체 등 주거 환경 개선 봉사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집안 어르신 생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낙상 고위험 독거노인 및 장애인 세대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가 중요하다.

다양한 기술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자원봉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찾아가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꾸준히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 실천이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의 주거 안전에 도움을 전해야 한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 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이다. 이웃사랑 실천이 그 지름길이다.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기 바란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밤하늘 수놓은 영연방경기대회 폐막 축하 불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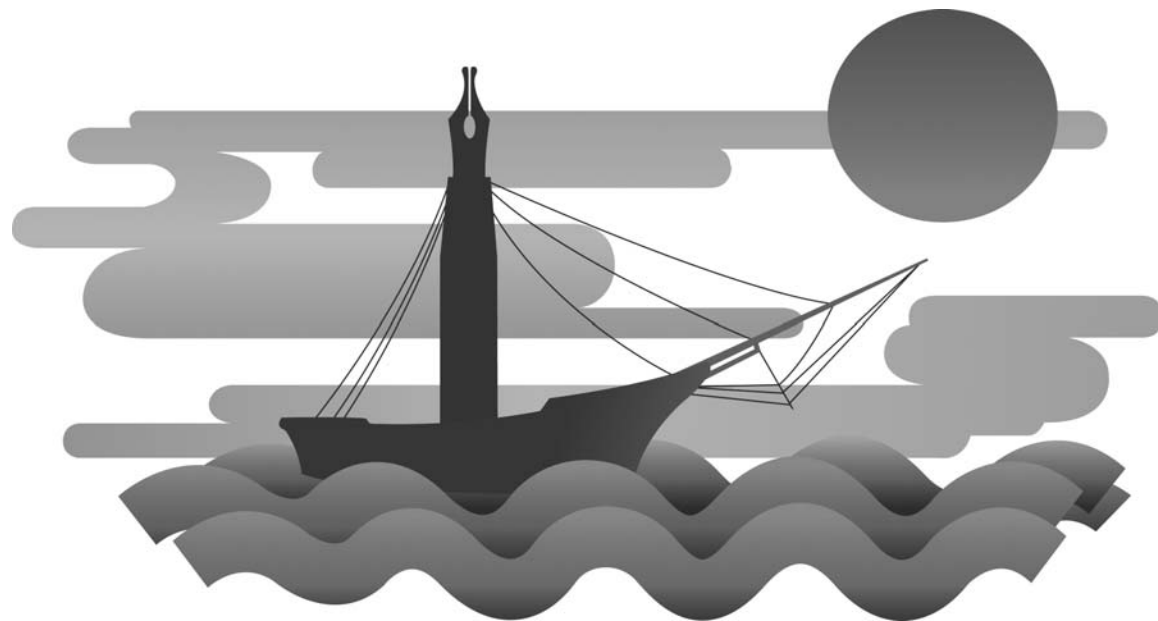
8일(현지시간) 영국 버밍엄의 알렉산더 경기장에서 '2022 영연방경기대회(Commonwealth Games) 폐막식이 열려 축하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다.

홍수 피해 상황 점검하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인 질 여사와 함께 8일(현지시간) 켄터키주 로스트 크리크 홍수 피해 지역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둘러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피해 복구에 연방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